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49



#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7.10~2025.07.16

##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0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연구, 장관, 운행(차량, 제한), 청년, 대응
경제·관광	관광객, 조합장, 글로벌, 중장년, 여름
지역·사회	범죄, 구조, 외국인, 단속, 교사

※ 분석 기간 : 25.07.10.~25.07.16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도심 주차 문제 해소 방안 연구</li> <li>- 한라산 구상나무 생태 연구 결과 발표</li> <li>- 제주연구원, 미래 대응 위한 조직개편 단행</li> </ul>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본격화</li> <li>- 문대림 의원, 장관 후보자에 제주 현안 질의</li> <li>-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프랑스 특사단장 임명</li> </ul>
	운행 (차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도, 8년 만에 외부차량 운행 제한 완화</li> <li>- 서귀포 이중섭거리, 주말 차량 통행 제한</li> <li>-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공공주도 사업 본격화</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초 '청년자율방재단' 제주서 출범</li> <li>- 제주더큰내일센터, 청년정책 우수기관 선정</li> <li>-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이 참여한 AI 교육 과정</li> </ul>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고 자살률에 맞춤형 예방 대책 가동</li> <li>- 폭염·고수온에 대한 선제적, 다각적 대응</li> <li>- 공무원 사칭 금융사기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 수 회복세, 소비는 부진</li> <li>- 야간관광 활성화 위한 시도</li> <li>- 소비자 피해 급증, 주의보 발령</li> </ul>
	조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조공법인, 신임 의장 선출</li> <li>- 서귀포축협, 가축시장 호황</li> <li>- 조합별 특색사업 및 교류 활발</li> </ul>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성료</li> <li>- 제주 크루즈 산업, 허브 도약</li> <li>- 제주산 제품, 해외시장 진출</li> </ul>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 인구구조 급격한 변화</li> <li>- 불안정한 경제 상황</li> <li>- 경제활동 및 인식 변화</li> </ul>
	여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트플레이션' 농수산물 가격 급등</li> <li>- 여름밤 즐길거리 풍성</li> <li>- 여름 휴가철 맞이 행사 다채</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대들의 잇따른 불법촬영 범죄</li> <li>- 휴가철 관광객 대상 성범죄 발생</li> <li>- 가족 및 지인 대상 폭력 범죄</li> </ul>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119구조건 '달래'의 합류</li> <li>- 해양사고 및 수난사고 잇따라 발생</li> <li>- 섬 지역 응급환자 헬기 이송</li> </ul>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범죄 및 무질서 행위 단속 강화</li> <li>- 외국인 관련 범죄 잇따라 발생</li> <li>- 우도 '오성홍기' 설치 논란</li> </ul>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li> <li>- 해수욕장 불법 폭죽놀이 단속 한계</li> <li>-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집중 단속</li> </ul>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교사 성추행 및 교권 침해 논란</li> <li>- 기간제 교사 호봉 계산 오류로 인한 급여 문제</li> <li>- 한일 교직원, 제주서 교육 교류의 장 마련</li> </ul>

##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7월 10일~7월 16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65건임
  - 정치·행정 분야 332건, 경제·관광 211건, 지역·사회 322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연구, 장관, 운행 (차량, 제한), 청년, 대응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도심 주차 문제 해소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의회 연구단체 주관으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간보고회와 토론회 개최. 제주시는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수급률 96.9%)한 반면, 서귀포시는 높은 확보율(187.6%)에도 낮은 건물 주차장 이용률과 높은 이면도로 주차 비율이 문제점으로 분석됨</li> <li>· 제주시의 경우 일도2동의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하며, 약 400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포화 상태임. 서귀포시는 외부 방문객의 장시간 이면도로 주차가 문제이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제주도 평균 대비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li> </ul> </li> </ul>
-------	----	--

	<p style="text-align: center;"><b>연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라산 구상나무 생태 연구 결과 발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4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한라산 구상나무 암꽃의 개화 주기가 3년임이 처음으로 확인됨. 2022년 평균 120개였던 암꽃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8개, 13.9개로 감소했다가 올해 평균 106.4개로 다시 개화하며 3년 주기 패턴을 보임</li> <li>· 특히 윗세오름과 방애오름 지역에서 개화 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영실과 큰 두레왓 지역은 다른 양상을 보임. 기후 변화로 인한 구상나무 군락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종자 결실 및 보전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li> </ul> </li> <li>- <b>제주연구원, 미래 대응 위한 조직개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연구원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함. 원장 직속으로 '미래대응전략실'을 신설하고, 기존 4개 연구부를 '도민행복연구실'과 '지속성장연구실' 2개 실로 통합함</li> <li>· 이번 개편은 도정과의 소통 및 연구기획 기능 확대, 융·복합 협력 연구 활성화, AI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기능 고도화를 목표로 함. 강창민 선임연구위원을 부원장으로, 강영준 연구위원을 신설된 연구기획전략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후속 인사를 완료함</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행정</b></p>	<p style="text-align: center;"><b>장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본격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부터 18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함. 여야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각종 의혹을 두고 청문회 첫날부터 충돌하며 파행을 빚는 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함</li> <li>· 특히 국민의힘은 강선우(여가부), 이진숙(교육부) 등 일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함.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후보자 전원 통과를 목표로 엄호에 나서고 있음</li> </ul> </li> <li>- <b>문대림 의원, 장관 후보자에 제주 현안 질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주 현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유치 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 개최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li> <li>· 또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남방정책의 출발점으로서 제주신항만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함. 이에 전재수 후보자는 제주신항만 추진에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유엔해양총회 개최지 선정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함</li> </ul> </li> <li>- <b>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프랑스 특사단장 임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에 파견할 대통령 특사단 중 프랑스 특사단장으로 제주 출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 이번 특사단 파견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 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기 위한 목적임</li> <li>· 강금실 특사단은 프랑스 정·재계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아 교역, 투자, AI·우주 등 전략 산업 및 문화 교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임</li> </ul> </li> </ul>

정치·행정	<p style="text-align: center;"><b>운행 (차량, 제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도, 8년 만에 외부차량 운행 제한 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섬 속의 섬' 우도의 외부 차량 운행 제한 규제를 8년 만에 완화하기로 결정함.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전기·수소 등 친환경 렌터카의 운행을 허용함</li> <li>·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임. 다만, 과거 극심했던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이륜차 운행 제한 해제에 대한 우려가 큼</li> </ul> </li> <li>- <b>서귀포 이중섭거리, 주말 차량 통행 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가 원도심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중섭거리를 보행자 전용길로 지정하고 차량 운행을 통제함. 오는 20일부터 매주 금, 토,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올레시장 입구부터 서귀포우체국 수련원까지 총 135m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됨</li> <li>· 이번 사업은 차도를 사람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의 일환임. 이중섭의 작품을 활용한 경관 조형물 설치와 디자인 도색 등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되었음</li> </ul> </li> <li>- <b>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공공주도 사업 본격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에너지공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 절차를 본격화함. 공공주도 2.0 방식의 첫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목표로 하며 7월 말 본 공모를 거쳐 내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li> <li>· 그러나 높은 참여 자격 조건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전력 과잉 생산 및 계통 연계 문제, 완도군과의 해상 경계 분쟁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됨. 특히 3년간 풍황 데이터를 축적한 특정 해외 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옴</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청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국 최초 '청년자율방재단' 제주서 출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Z세대가 주축이 된 청년자율방재단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주에서 출범함. 제주한라대 사회복지·간호학 전공생 23명으로 구성된 방재단은 재난 예방 홍보, 이재민 심리 안정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임</li> <li>· 이번 청년방재단 출범은 단원 절반 이상이 60대인 기존 지역자율방재단의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제주도는 단원들에게 현장 견학, 봉사 시간 인정, 민간 자격 취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임</li> </ul> </li> <li>- <b>제주더큰내일센터, 청년정책 우수기관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이번 선정의 핵심 배경으로 제주더큰내일센터의 '탐나는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음</li> <li>· 더큰내일센터는 청년들에게 18개월간 실무 중심의 교육과 인턴십, 창업 실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주 대표 청년지원기관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li> </ul> </li> </ul>

	<p>청년</p>	<p>다수의 청년이 민간 기업 취업과 제주 창업에 성공하며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성과를 거둬</p> <p>-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이 참여한 AI 교육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미래학회와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이 주관한 '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1급 실전 과정'이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수강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됨. 8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 60대 부부, 20대 연인 등 세대를 초월한 참여가 눈길을 끌었음</li> <li>· 교육은 챗GPT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습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수강생들은 창의성과 실전 역량을 함양함. 수료자들은 자격증 취득과 함께 AI를 통한 세대 간 소통과 따뜻한 휴머니즘 구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li> </ul>
<p>정치·행정</p>	<p>대응</p>	<p>- 전국 최고 자살률에 맞춤형 예방 대책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제주도가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함.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해 대응 계획을 수립할 방침임</li> <li>· 주요 대책으로는 유관기관 협력 강화, 생명지킴이 교육 확대, 자살 위기 대응 시스템 개선,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됨. 정부의 자살 급증 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따라 지역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임</li> </ul> <p>- 폭염·고수온에 대한 선제적, 다각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야외 노동자 및 양식 어가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함. 야외 근로자에게 냉방용품과 함께 제주삼다수 1만여 병을 지원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훈디썬팡'의 주말 운영 시간을 확대함</li> <li>· 고수온 주의보가 조기 발효됨에 따라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면역증강제 보급, 노후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함. 또한, 정부는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개정함</li> </ul> <p>- 공무원 사칭 금융사기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제주도 내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서, 교도소 등 공무원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총 2060만 원의 피해가 접수됨. 사기범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 등을 사용해 신뢰를 얻은 뒤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함</li> <li>· 제주도는 사기 수법이 매우 정교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함</li> </ul>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관광객**, **조합장**, **글로벌**, **중장년**, **여름**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광객 수 회복세, 소비는 부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월 만에 6월 관광객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내국인 단체관광 회복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7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관광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함. 반면, 대형마트 소매판매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감소하며 관광객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경기 회복의 불완전성을 드러냄</li> <li>· 내국인 관광객 감소의 영향으로 렌터카 및 전세버스 가동률이 하락했으며, 우도, 마라도 등 '섬 속의 섬' 방문객 역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하지만 5월을 기준으로 비양도와 추자도 방문객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임</li> </ul> </li> <li>- <b>야간관광 활성화 위한 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시내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시작됨.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되며 여름 휴가철 및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추가 운행이 예정되어 있음. 이 버스는 이호 목마등대, 동문재래시장, 산지천 분수쇼 등 주요 야간 명소를 경유하는 코스로 구성됨</li> <li>· 서귀포시는 새연교에서 '금토금토 새연쇼'라는 상설 주말 공연을 10월까지 개최하여 음악 공연, 불꽃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함. 이와 함께 '이호 필터 페스티벌' 등 다양한 야간 축제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야간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ul> </li> </ul>
-------	-----	---

<b>경제·관광</b>	<b>관광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비자 피해 급증, 주의보 발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 숙박,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함. 최근 3년간 관련 피해는 1523건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li> <li>· 주요 피해 유형은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및 '환불 거부'로, 항공권의 53.7%, 숙박의 71.7%가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음.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 시에도 숙박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음</li> </ul> </li> </ul>
	<b>조합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조공법인, 신임 의장 선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현재근 제주위미농협 조합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함. 그는 앞으로 2년간 법인을 이끌며 사업 확대와 조합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li> <li>· 신임 이사진은 제주시농협 고봉주 조합장 등 8명의 조합장으로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임. 현재근 신임 의장은 "조합 간 유기적인 협조와 성과 창출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힘</li> </ul> </li> <li>- <b>서귀포축협, 가축시장 호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축산농협의 7월 가축시장이 출품된 송아지 55두 전량이 낙찰되며 성황리에 마감되었고, 평균 낙찰가는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김창순 농가가 출품한 수송아지는 730만 원에 낙찰되어 올해 최고가를 경신함</li> <li>· 김용관 조합장은 "한우 개량과 품질 향상에 힘써온 농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자랑스럽다"며,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함. 김창순 농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출품한 모든 송아지를 높은 가격에 거래시키며 주목받음</li> </ul> </li> <li>- <b>조합별 특색사업 및 교류 활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양돈농협(고권진 조합장)은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제주도니' 돼지고기 구매 영수증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상공인 활력 제고와 관광객 추억 만들기를 목표로 함. 표선농협(김용우 조합장)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합청사를 신축하고 준공식을 개최함</li> <li>· 중문농협(김성범 조합장)은 경북 새의성농협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농산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함. 또한, 함덕농협(현승중 조합장)과 울산 농소농협(정성락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하며 지역 발전에 동참함</li> </ul> </li> </ul>
	<b>글로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성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신화월드에서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가 50개국 500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고 누적 참관객 4만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개최됨. 전기차, UAM, 배터리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총망라되어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음</li> <li>· 이번 엑스포를 통해 1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과 42건의 수출·협력 계약 및 MOU가 체결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 오영훈 지사는 9개국 주한 대사들과 만나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함</li> </ul> </li> <li>- <b>제주 크루즈 산업, 허브 도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크루즈의 비전'을 주제로 한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개최되어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함. 제주에서 출발하는 '준모항' 상품은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며 내년까지 75항차가 예약 완료됨</li> </ul> </li> </ul>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를 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제주 1박 관광 유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논의함. 또한, 도외 탑승객 비중을 확대하고 웨딩·MICE 등 테마형 상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발전시킬 계획임</li> <li>- <b>제주산 제품, 해외시장 진출</b></li> <li>· 청정 제주산 원료를 활용한 '제주화장품'이 글로벌 뷰티 엑스포 '인터참코리아'에서 4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 32건을 성사시킴. 유럽 및 아시아 바이어들과의 계약 체결은 원스톱 프로세스 홍보가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음</li> <li>· '푸파페 제주' 박람회를 통해 제주 농특산물의 말레이시아 수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현지 유통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경제통상진흥원은 일본의 유력 유통기업을 초청하여 도내 10개 기업과 1:1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일본 시장 수출 확대를 모색함</li> </ul>
경제·관광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장년 인구구조 급격한 변화</b></li> <li>· 2023년 기준 제주의 중장년(40~64세) 인구는 26만 9천 명으로, 최근 3년간 3.9% 증가하여 전국 평균(0.5%)을 크게 웃돌았음. 제주 전체 인구에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1.5%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li> <li>· 1인 가구 비중이 27.8%로 가장 높아지며 '작은 가족화' 경향이 뚜렷해짐. 이는 3년 전 4인 이상 가구가 가장 많았던 것과 대조적인 변화임.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율은 53.6%에서 50.4%로 감소함</li> <li>- <b>불안정한 경제 상황</b></li> <li>· 중장년의 절반 이상(55.2%)이 무주택자이며, 무주택 가구 비율(39.6%)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대출 보유 비율(62.3%)도 전국 평균(57.0%)을 상회하며, 1억 원 이상 대출자 비중이 37%에 달함</li> <li>· 소득이 있는 중장년 비중은 79.1%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5명 중 1명(20.9%)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노후 준비 비율은 78%로 증가했지만, 그 방법은 대부분 공적연금(66.5%)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li> <li>- <b>경제활동 및 인식 변화</b></li> <li>· 등록 취업자 수는 8.8% 증가했으며, 특히 여성 취업자(12.1%↑)의 경제활동 참여가 남성(6.1%↑)보다 뚜렷하게 늘어남. 임금근로자는 건설업에, 비임금근로자는 숙박·음식점업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li> <li>·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64.5%로 증가하고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은 감소함. 주된 여가생활은 동영상 시청과 휴식이며, 취미나 사회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은 소수에 그침</li> </ul>
	여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히트플레이션' 농수산물 가격 급등</b></li> <li>· 폭염의 영향으로 수박 한 통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40% 가까이 폭등함. 또한, 닭 폐사율 급증으로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가격 인상이 우려되며, 생계 유통가격이 전년보다 28% 높을 것으로 전망됨</li> <li>· 제주의 여름 별미인 '한치'는 고수온 현상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함. 광어, 우럭 등 다른 횡감 역시 치어 폐사 증가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하는 등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음</li> </ul>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p>지역·사회</p>	<p>범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대들의 잇따른 불법촬영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의 한 유명 관광지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10대 고등학생 A군이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됨. 화장실을 이용하던 손님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불법 촬영 추정 영상이 발견되어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 여부를 수사 중</li> <li>·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학생 신분으로 밝혀지자 제주도교육청도 서귀포시 동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섬. 도교육청은 향후 도내 모든 학교에 점검을 요청하고, 카드형 불법 촬영 탐지 키트 보급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힘</li> </ul> </li> <li>- 휴가철 관광객 대상 성범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직원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음.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li> <li>· 이 사건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함. 지역 사회와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li> </ul> </li> <li>- 가족 및 지인 대상 폭력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연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4층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됨. 이 과정에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됨</li> <li>·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60대 남성이 금전 문제로 가족과 다투다 인화물질로 분신 소동을 벌이며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검찰에 구속 송치됨</li> </ul> </li> </ul>
	<p>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119구조견 '달래'의 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종자 수색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119구조견 '달래'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공식 입단함. '달래'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전문 양성 훈련을 이수한 2022년생 복합 구조견으로 산악 및 재난 수색 능력을 갖춘</li> <li>· '달래'의 합류로 제주소방은 기존의 '나르샤', '강호'와 함께 총 3마리의 구조견을 운용하며 24시간 상시 출동 인프라를 구축하게 됨. 2012년 이래 제주의 구조견들은 119건의 구조 활동에 투입되어 29명의 생명을 구하는 등 큰 활약을 펼쳐옴</li> </ul> </li> <li>- 해양사고 및 수난사고 잇따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서 6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5분 만에 안전하게 구조됨. 또한 서귀포시 대포동 해변 인근에서는 스노클링을 하던 40대 관광객이 물에 빠졌으나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됨</li> </ul> </li> </ul>

지역·사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이호테우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발견되어 해경이 수습 후 지자체에 인계함. 해경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바다에서 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함</li> <li>- <b>섬 지역 응급환자 헬기 이송</b></li> <li>· 제주시 우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30대 여성 관광객이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치고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즉시 소방헬기 '한라매'를 투입하여 부상자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함</li> <li>· 이 외에도 우도에서 지하실 공사 중 사다리에서 추락한 40대 남성이 발목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섬 지역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이러한 사고들은 도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및 신속한 환자 이송 수단의 중요성을 보여줌</li> </ul>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국인 범죄 및 무질서 행위 단속 강화</b></li> <li>· 제주경찰청이 100일간 '외국인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을 추진, 강·절도범 31명을 포함한 외국인 범죄자 237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임. 또한 교통·기초질서 위반 등 무질서 행위 단속 건수는 434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배 급증함</li> <li>· 단속 강화로 무단횡단이 413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안전띠 미착용 등도 다수 적발됨. 경찰은 이러한 활동이 제주 전체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하반기에도 기초질서 확립 활동을 이어갈 방침임</li> <li>- <b>외국인 관련 범죄 잇따라 발생</b></li> <li>·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남성이 제주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항공권과 숙소 비용 등 1400만원을 결제하고 일본으로 도주했다가, 귀국 후 인천에서 또다시 차량을 훔친 혐의로 구속 송치됨</li> <li>·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 피해자는 4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했으며, 경찰은 가해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임</li> <li>- <b>우도 '오성홍기' 설치 논란</b></li> <li>· 제주시 우도 하고수동해수욕장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태극기와 함께 설치된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어남. 다수의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에 외국 국기를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임</li> <li>· 확인 결과, 인근 카페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종업원이 한중 우호를 다지는 의미로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됨. 논란이 확산되자 설치 당사자가 만 하루 만에 자진 철거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외국 국기 설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킴</li> </ul>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b></li> <li>· 제주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함. 단속은 해수욕장, 유흥가,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음주운전 우려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느슨해지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li> </ul>

지역·사회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야를 불문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병행하고,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및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임</li> <li>- <b>해수욕장 불법 폭죽놀이 단속 한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로 금지된 해수욕장 내 폭죽놀이가 제주 함덕해수욕장 등에서 여전히 성행하며 소음, 안전사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백사장 곳곳에서 발견되는 폭죽 잔해물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li> <li>· 행정당국이 해수욕장 개장 시간에는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이지만, 주로 야간에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또한, 인근 상점에서의 폭죽 판매를 강제로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음</li> </ul> </li> <li>- <b>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집중 단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경찰이 100일간의 특별치안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함. 무단횡단이 413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안전띠 미착용 등도 다수 적발됨</li> <li>·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우도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108건을 포함해 총 14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집중 관리가 이뤄짐. 이러한 단속 강화는 제주 전체의 5대 범죄율을 20% 이상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치안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음</li> </ul> </li> </ul>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생의 교사 성추행 및 교권 침해 논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 및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구함</li> <li>· 제주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교권침해로 인정하면서도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됨.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 부재를 드러낸다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함</li> </ul> </li> <li>- <b>기간제 교사 호봉 계산 오류로 인한 급여 문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2년간 기간제교사의 호봉을 잘못 계산하여 급여를 더 주거나 덜 주는 등 부적정한 행정 처리가 있었음이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됨. A교사는 경력 조회 미실시 및 잘못된 환산율 적용으로 보수 329만여 원을 과다 지급받음</li> <li>· 반대로 B교사는 계약 연장 시 경력에 따른 호봉 재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88만여 원의 보수를 덜 받음.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과다 지급액 회수 및 부족 지급액 추가 지급을 명령하고,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주의를 요구함</li> </ul> </li> <li>- <b>한일 교직원, 제주서 교육 교류의 장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2025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연수</li> </ul> </li> </ul>

지역·사회	교사	<p>'가 제주에서 열려, 일본 교직원 60명이 제주의 교육 현장을 탐방하고 한국 교사들과 교류함. 이번 연수는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됨</p> <p>· 일본 교직원들은 표선고, 인화초 등 제주의 학교들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소통했으며, '한일 교사 대화 25주년 기념 교사 포럼'을 통해 양국 교육의 협력 방향을 모색함. 이번 행사는 양국 교사들이 교육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협력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음</p>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